



2026. 9. 29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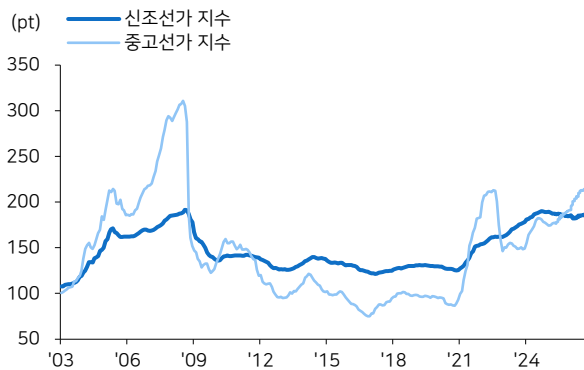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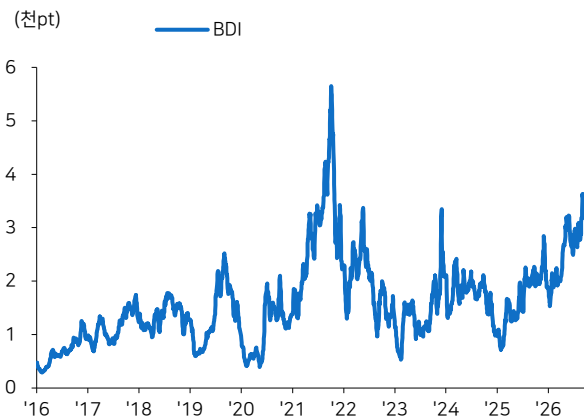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8.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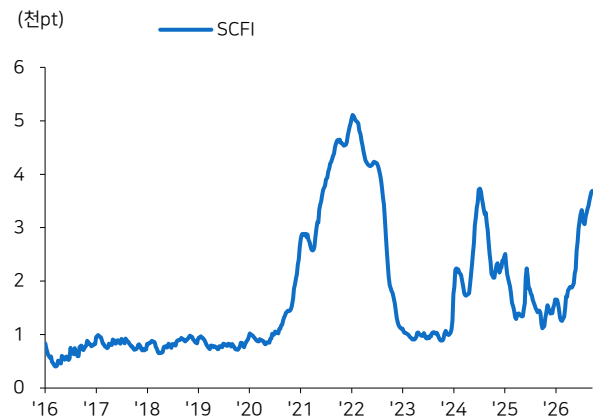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426.0p (-4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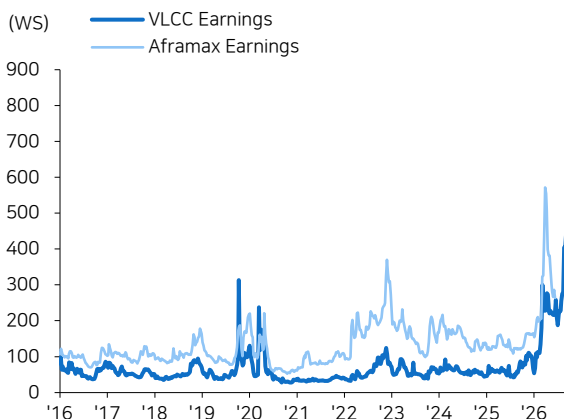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87.8 (+25.7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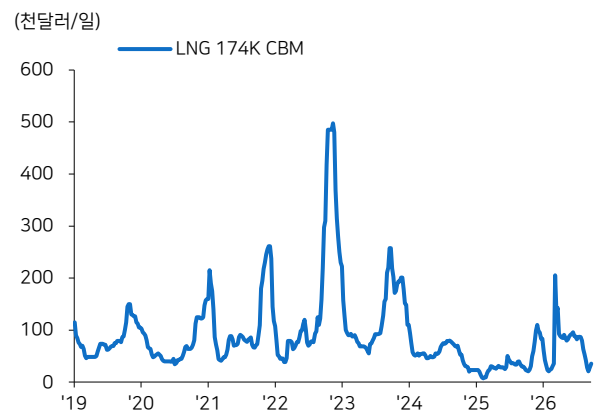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25.0WS (+147.6 WoW)



LNG Spot 운임

35.8천달러 (+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Zodiac Maritime breaks into LNG carrier business with \$500m Hanwha order (TradeWinds) <https://zrr.kr/wQ9i8f>

Zodiac Maritime이 한화오션에 174,000m³급 LNG선 2척을 약 5억달러에 발주하며 LNG선 시장에 처음 진입한다고 보도됨. 2029년 11월까지 인도 예정이며, 2척 추가 옵션이 포함된 계약으로 이중연료 추진과 WinGD X-DF 엔진, 한화오션의 질소 기반 재액화 및 화물 압력관리 시스템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Zodiac은 LPG선과 FPSO·FSO 등 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LNG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 발주를 포함해 한화오션은 올해 총 41척, 77.1억달러 규모의 신조선 수주를 기록했다고 전해짐.

HD 현대중공업,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170억 추가 투입 (뉴시스) <https://zrr.kr/0lyuF3>

HD현대중공업이 2030년 안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올해 170억원을 추가 투입해 금속표면파 통신·비전 센서·바디캠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확대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보도됨. 밀폐공간 통신 음영을 해소하고 위험구역의 사고 가능성을 실시간 감지하는 한편, 작업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안전작업 책임제'와 현장 작동성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 작업뿐 아니라 일상·비일상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짐. 또한 사업부별 안전조직을 개편하고 안전기술부를 신설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AI 기반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 현장 대응력과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일 예정으로 전해짐.

美 트럼프, 원자력 추진 상선 개발서 일본 우선 고려...한국은 '플랜 B'로 밀려나 (더구루) <https://zrr.kr/TAHoLE>

미국 정부가 중국의 상업용 조선업 지배력에 대응해 영국 Core Power와 원자력 추진 상선 및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을 선체·비핵 시스템 제작의 우선 협력국으로 고려하고 한국은 '플랜 B'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Mitsubishi·Mitsui·Sumitomo 등 일본 기업들이 Core Power에 2억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를 단행하고 금융·공급망·정부 지원 등 산업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면서 일본이 우선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알려짐. HD현대 TerraPower 및 Core Power와 원자로 기술 협력을, 삼성중공업은 SMR 기반 부유식 원자력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며 한국 조선업계도 원자력 선박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짐.

EU to delay methane regulations (Upstream) <https://zrr.kr/LrJiHP>

EU 집행위원회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메탄 규제 도입 연기를 추진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는 프랑스·독일과 미국·카타르 등 주요 LNG 수출국의 반발과 글로벌 가스 공급 불안을 반영한 조치로 보도됨. LNG 수급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감소로 타이 트해진 가운데, 규제의 검사·보고·검증 기준이 불명확하고 EU향 LNG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알려짐. EU 집행위원회는 연기 기간을 밝히지 않은 채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중동 에너지 공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공급 안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짐.

Not on my watch: Trump dumps on 'obscure' IMO's net-zero plan (TradeWinds) <https://zrr.kr/lqlxe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업 탄소가격제 도입에 반대하며 재임 중 글로벌 탄소세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로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합의가 지연된 가운데, 친환경 연료 비용과 공급 부족 등을 둘러싼 논쟁까지 겹치며 탈탄소화 관련 선박 발주도 둔화됐다고 알려짐. IMO 회원국들은 오는 12월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못해 글로벌 해운 탄소가격제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해짐.

Elderly VLCCs almost double in value in 'once in a lifetime' market (TradeWinds) <https://zrr.kr/QKaylv>

VLCC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가를 웃도는 가운데 선령이 높을수록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됨. Signal Ocean에 따르면 5년·10년·15년·20년 VLCC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30%, 42%, 61%, 90% 상승했으며, 20년령 VLCC도 약 7,110만달러에 거래돼 폐선이 2,080만달러를 크게 상회한다고 알려짐. 중동산 원유 공급 차질과 운임 급등으로 선박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령보다 즉시 인도 가능 여부가 가격을 좌우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 VLCC 신조선가는 약 1억3,200만달러 수준으로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